



# 천연 성분으로 피부 보습력 높은 '착한 앰플'

(고농축 영양성분)

침구 청소기업체인 코니맥스가 기능성 화장품을 내놓고 '제2창업'에 나섰다.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차원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주력 업종을 바꾸겠다는 게 회사 복안이다. 침구 청소기업체가 화장품 회사로 변신을 시도한 데는 그동안 축적한 금형노하우 기술이 기반이 됐다.

일회용 화장품 밀폐용기 개발에 자신감을 얻은 손혁 코니맥스 대표는 자체 제품을 개발해 화장품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손 대표는 "대부분의 화장품엔 피부에 좋지 않은 방부제가 들어간다"며 "일회용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방부제를 넣지 않은 '착한 화장품'을 3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말했다.

### ◀기능성 화장품 시장 '노크'

코니맥스는 2014년 일반적인 진공청소기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침구청소기 헤드를 시장에 내놔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히트를 치는 가 싶었던 제품 인기는 급세 시들해졌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몰려온 데다 영국 다이슨 등 청소기 전문기업들이 침구 청소기 헤드를 '공짜' 구성품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매출이 점점 줄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없으면 회사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017년경 후속 사업을 고민하던 손 대표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페녹시에탄올 등 방부제가 피부에 해롭다는 기사를 접했다. '일회용 화장품 밀폐용기를 만들어 화장품을 유통·보관하면 방부제를 넣지



손혁 코니맥스 대표가 천연 앰플 '베타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금형 노하우로 일회용 용기 개발 방부제 안 넣고도 3년 이상 사용 오픈마켓·인플루언서 마케팅 주력 매출 50억 목표 ... 중동 수출도

안아도 될 것'이란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금형과 기계설계가 전문인 손 대표는 일회용 밀폐용기 개발을 끝낸 후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일회용 밀폐용기만으로는 사업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손 대표는 연구원 출신 지인을 통해 베타글루

칸이란 성분이 피부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베타글루칸은 지마버섯 균사체 성분으로 보습·주름개선·미백·탄력 효과가 있다. 보습력도 히알루론산(세균의 침입을 막는 고분자 화합물)보다 20~50%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 성분을 활용해 방부제를 넣지 않은 천연 화장품 앰플(고농축 영양 성분)을 만들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9개월간 개발 끝에 지난해 1월 '베타칸'을 출시했다. 손 대표는 "히알루론산은 화학원료이지만 베타글루칸은 천연원료"라며 "일회용기는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코니맥스	
설립	2002년
위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주요 제품	화장품 앰플
특징	일회용 밀폐용기를 활용해 방부제를 넣지 않은 천연 앰플

### ◆금형 기술력 기반으로 '제2창업'

베타칸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 달 이용분인 30개 앰플 가격은 12만원이다. 손 대표는 "효과 확실한 점을 내세워 준전문가급인 화장품 구매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 내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면세점 등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

그는 "중국·미국 유럽에서도 천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비롯해 중동 등으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0억원 수준이다. 손 대표는 "플라톤을 활용한 신제품도 개발 중"이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내세워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ju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플라스틱 플래닛)

# "회사 9개월 만에 나온 첫 제품 첫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설렘"



### 오기희 OhY Lab. 대표

지나해 여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아이들 시각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콧구멍에 빨대를 꽂은 바다거북을 본 아이가 마음 아파하면서 '나 이제 빨대 안 쓸래'고 말하는 순간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사용자 한 명 줄어든다. 아이의 작은 결심은 나비의 날갯짓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 사회에 나가면 그 결심은 태풍이 돼 돌아올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룬 보드게임 '플라스틱 플래닛'은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북과 보드게임, 증강현실(AR)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동물을 괴롭히는 쓰레기 괴물을 찾아 나선 주인공이 쓰레기 괴물의 정체를 알아가는 과정을 스토리북으로 담았다. AR 콘텐츠와 보드게임을 쓰레기 괴물에게 고통받는 동물들을 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재미 한 그릇에 가지 한 꼬집을 담는다'는 오와이랩의 철학을 담아 만들었다.

보드게임이 유아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 순 없었다. 임의로 만든 규칙과 구성물도 유아를 모아 놀아보는 것을 반복하며 몇 개월을 보냈다.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한 아이(보통 6세)라면 게임을 이해하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룰로 만들었다. 유아가 할 수 있다고 만만히 보면 금물이다. 게임 참가자가 몰리려야 하는 쓰레기 괴물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 게임 규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물을 끌고와 스토리텔링을 짜 넣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주 작은 일상이 동물들을 괴롭힌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할 수 있는 것 이라고는 아이디어를 내고 맞춤법에 맞춰 글을 쓰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다. 전 직장에서의 작은 인연으로 닿았던 김혜승 작가가 흔쾌히 게임 디자인을 맡아줬을 때, 김 작가를 통해 AR 제작자인 서준교 킷리 대표를 소개받았을 땐 만세를 불렀다. 인맥이 힘이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멘토로 연결해 준 김기찬 만드게임즈 대표는 보드게임을 제작할 때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돕고 있다.

플라스틱 플래닛은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이디스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재미 한 그릇에 가지 한 꼬집을 담는다'는 오와이랩의 철학을 담아 만들었다.

보드게임이 유아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 순 없었다. 임의로 만든 규칙과 구성물도 유아를 모아 놀아보는 것을 반복하며 몇 개월을 보냈다. 더하기나 빼기가 가능한 아이(보통 6세)라면 게임을 이해하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룰로 만들었다. 유아가 할 수 있다고 만만히 보면 금물이다. 게임 참가자가 몰리려야 하는 쓰레기 괴물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 게임 규칙에 몰입할

플라스틱 플래닛을 생각하고 시장에 내놓기까지 걸린 기간은 9개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날, 새 제품이 나왔으니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제품을 알릴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 어떤 게든 되지 않을까. 그저 주어진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볼 뿐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케미컬 지고 바이오 뜬다? ... "합성의약품 매력 여전"

### 8년간 기술수출 절반 차지 "개발 노하우 쌓인 덕분" IT기술로 물질 발굴도

합성(케미컬)의약품이 국내 바이오벤처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지만 그동안 축적된 개발력 등을 토대로 합성의약품 특세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88건 중 합성의약품은 51건(57%)이다. 2016년 SK 케미칼에서 독립한 티움바이오는 3년 만에 2건의 합성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했다. 보로노이, 미토이문테라퓨틱스,

### 꾸준히 커지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오스티오뉴로젠 등 바이오벤처들도 합성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하 미토이문테라퓨틱스 대표는 "오염 합성의약품은 지고 바이오의약품이 뜨는 추세지만 실제로는 바이오신약보다 합성신약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합성의약품은 저분자 화학물질을

결합해 만들고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 등으로 제조한다. 합성의약품은 합성법을 알면 저렴하고 쉽게 생산이 가능하다. 반면 바이오의약품은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기 때문에 생산하기 어렵고 생산 단가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이 합성의약품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이오의약품보다 합성의약품 개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며 "합성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가 많은 배경"이라고 했다.

합성의약품은 환자 편의성 측면에도 장점을 갖고 있다. 합성의약품은 대부분 알약이지만 바이오의약품은 거의 정맥주사제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의약품은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경구 투여해도 약효가 병변에 빨리 작용한다"며 "바이오의약품보다 다양한 방법

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했다.

약물 작용 기전도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이 다르다. 합성의약품은 저분자 물질이어서 세포막을 투과해 세포 안 병변에 직접 작용한다. 바이오의약품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지 못하고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해 간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낸다. 김 대표는 "난치성 폐질환 등 많은 질환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으로 생기는데 합성의약품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독성은 줄이면서도 약효를 높인 파이프라인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로노이는 컴퓨터로 화합물과 분자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가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합성신약을 개발 중이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기관 50곳 모집

### 소상공, 다음달 1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공)이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관련 50개 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재창업패키지 사업은 비(非)과일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폐업하더라도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의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한 e러닝교육과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직접 이론 및 실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업종 전문교육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은 올해 지난해(35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6000명의 소상공인 재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재창업 교육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해 제

창업·업종전환을 포함한 취업, 폐업 등을 바른 진로 선택을 돕는다. 아울러 교육 후 재창업 우수자 홍보 지원 등의 통합 관리와 수요·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후 관리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들은 모집 기간 내 지식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공단 지역센터에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3차원(3D)프린터를 활용한 1인 제조 기업 창업이나 드론(무인항공기) 정비 엔지니어 과정과 같은 비과일 업종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교육 수요생 중 59.5%는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했다. 조봉환 소상공인 이사장은 "재창업 교육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운영체계도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구매·조달 장터 나이스다큐

### 전자입찰/전자계약 임대서비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고민 1**

구매비용 절감 및 구매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고민

**고민 2**

계약 체결 및 계약서 보관에 대한 고민

**고민 3**

도입은 하고 싶는데 많은 구축 비용에 대한 고민

제조 + 유통 + 금융 + IT + 서비스 + 건설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1,500여 이상의 기업에서 사용중인 나이스다큐 서비스

나이스다큐는 견적관리, 입찰관리, 계약관리, 업체관리, 실적관리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

시스템 문의 02-788-9097/9098

www.nicedocu.com

나이스다큐